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14일 각 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되였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서는 해당 단위 책임일군들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의 날이며 희세의 천출위인을 맞이한 혁명적대경사의 날이라고 말하였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이날과 더불어 주체년호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사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원리, 강력한 총대우에 민족의 자주독립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원리를 천명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자력자강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 혁명력사에 자강력승리의 첫 페지를 수놓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조성될수록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헤쳐오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창조된 자력자강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고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으로 내달리게 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조국이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 국가, 군대건설업적이 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온 나라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화목하게 사는 일심단결의 사회주의,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가장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온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행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보고자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감으로써 날로 융성번영하는 우리 조국과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에 쪼아박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가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당의 의도대로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함으로써 가치있는 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전력부문의 로동계급이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금속공장들에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철강재를 경제강국건설장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화학제품과 주체비료생산을 늘여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등에서는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대고조전역들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륜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의도에 맞게 신의주화장품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등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처럼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포구마다에 《이채어경》을 펼쳐놓으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례성강청년5호발전소, 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모든 시, 군들을 흥하고 번성하는 자급자족지역으로 전변시키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등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희한하게 전변시킬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과학교육시설들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군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어버이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자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이 후손만대로 무궁번영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가 되자!》 등의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국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내 조국의 힘찬 동음소리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성스러운 4월 15일이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우리 조국이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소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후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치좋은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시여 소년단원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도 참석해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더욱 줄기차게 흘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학교들을 찾으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현지시찰의 길에서 소년단원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소년궁전들을 더욱 훌륭히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당원의 영예와 영웅의 금별메달도 붉은넥타이와 소년단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입단식이 있었다.

최룡해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하였다.

일군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휘장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목청껏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전쟁로병 박명식, 창덕학교 교장 전종호, 4.25체육단 선수 김국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을 당부하였다.

련합단체대회는 《김정은원수님 발걸음 따라 앞으로》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퍼질 행복의 보금자리

훌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진행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전설들이 날에날마다 꽃펴나고있는 속에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훌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이 행복한 야영생활을 시작할수 있게 되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받들려 문천시의 경치좋은 바다가기슭에 솟아난 야영소는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아이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이다.

야영소에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과 2개 호동의 야영각, 식당, 해수욕장, 회관, 체육관, 운동장 등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식에는 도안의 일군들과 야영소 교직원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신정남 강원도당위원회 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솟아나는 복받은 강원땅에 도안의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사랑의 궁전, 만복의 보금자리가 일떠섬으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 되시여 경치좋은 곳마다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소년궁전, 야영소들을 선참으로 일떠세워주시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천만가지 복을 모두 안겨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도록 하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고 말하였다.

건설자들은 한겨울의 강추위와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드센 공격전으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벽체쌓기 등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으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건설물마다에 애국의 열정을 바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도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증산돌격전을 벌려 건설용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였으며 각계층 근로자들이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야영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강원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연설자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충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자들답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으로 과감히 뚫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련이어 창조하여 강원도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야영소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야영조직과 활동을 새 세기 발전하는 교육학적요구와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친혈육의 정으로 야영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그들이 즐거운 나날을 한생토록 추억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야영소의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 교구비품들을 애호관리하며 정상유지, 정상관리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당의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해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당적인 기준도, 전국의 본보기도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강원땅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야영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모든 도발적인 선택을 우리 식의 초강경대응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지금 조선반도에는 새로 들어선 트럼프미행정부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광기로 하여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금까지 트럼프행정부가 《전략적인내》로 알려진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끝난 정책》으로 인정하고 여러가지 대조선정책안들을 탁우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려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전부터 미국에서 공식적인 립장표명이 없이 우리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드러나 《도로 오바마행정부》라는 평이 나돌았지만 높은 자제력과 인내성을 가지고 사태추이를 각성있게 주시해왔다.

그러나 남조선전역에서 강행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핵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트럼프행정부는 드디어 날강도적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선택한 대조선정책은 첫째로는 그 누구와 함께 고강도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것이며 둘째로는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한다는것이며 셋째로는 우리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것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지난 4월 6일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유도무기타격을 감행한 트럼프미행정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쎄지》로 된다고 광고하면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공갈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에 진입할수 있는 특수작전집단들과 전략적인 수중,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을 전개해놓은 상태에서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전단까지 항로를 바꾸어 조선반도수역으로 긴급출동시키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지금 미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관계자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단독군사행동에 대해 줴쳐대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 엄중한 군사적도발광기가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로 치닫고있는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위임에 따라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세상에 선포한다.

1.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른 날강도적인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도발책동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기동을 동반한 우리 식의 불의적인 선제타격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들이 들어있다.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 식의 적중한 초강경대응이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것이다.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모든 초강경대응을 따라세울수 있게 만단의 격동상태를 항시적으로 유지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미국의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겪고있는 이라크나 리비아, 얻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은 수리아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2.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괴멸적징벌을 목표로 무자비하게 가해질것이다.

남조선의 오산과 군산, 평택을 비롯한 미군기지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악의 본거지들은 단 몇분이면 초토화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덩지큰 목표들이 가까이에 접근해올수록 섬멸적타격의 효과는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다.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전구안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우리의 전략로케트군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주체조선의 명예와 존엄을 걸고 승리의 기발을 날릴 때까지 전개되는 미증유의 결사전이다.

3.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은 제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문제해결의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성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적도발에 근본원인이 있다.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핵억제력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핵위협과 공갈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이어온 력대 미행정부에 의해 마련되였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첨예한 조미대결사를 랭정하게 돌이켜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것이 미국에도 리로울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자들과는 앞으로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갈것이며 미국의 모든 도발적인 선택들을 언제나 우리 식의 초강경대응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14일
평 양